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신문의 지면이 달라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이틀테면 사회면의 경우 전에는 교통사고나 화재 기사 등과 같은 사건사고를 한 면에 묶어 내보냈으나 요즘에는 그런 기사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면마다 기획기사나 심층취재 기사가 넘친다. 선진국의 추세를 많이 따라잡은 셈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는 오래도록 변화가 없었다. 저녁 9시에 내보내는 KBS-TV의 '뉴스9'나 MBC-TV의 '뉴스데스크', 8시에 내보내는 SBS-TV의 '8뉴스'는 대체로 서툰 쪽지 안팎의 기사를 간추려 보도해왔다. 기사의 포맷도 틀에 박은 듯이, 기자가 뉴스의 핵심을 말 한 뒤에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기자가 마무리하는 스타일이었었다. 정해진 시간에 서툰 쪽지 기사를 보도하자나 자연히 한 사건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TV 뉴스의 이런 오랜 관행을 MBC-TV가 허물고 있다.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요즘 MBC-TV의 '뉴스데스크'는 뉴스의 수가 줄고 그 대신 뉴스당 방송시간이 늘었다. '뉴스데스크'는 대체로 스물다섯 쪽지 미만으로 구성한다.

MBC-TV 뉴스가 달라졌다

전에 비해 대역섯 쪽지가 줄었다. 쪽지가 준 이상 뉴스 하나에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MBC-TV는 주요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를 스튜디오로 불러옴과 대담을 나눈다. 전에는 1분30초에 처리할법한 내용을 5~6분에 걸쳐 자세히 보도한다. 새로운 형식이다. 영커와 기자가 서너 차례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정형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리지만 새로운 시도가 일상화하면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다. MBC-TV가 포맷을 바꾼 김에 조금 더 고쳐보으면 하는 것도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선 옷차림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사회인 미국에 가보면 시청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각국의 뉴스프로그램을 종일 방송하는 채널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뉴스 프로그램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맨 먼저 눈을 끄는 것이 옷차림의 차이이다. 영커는 후진국...

속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 특히 우리 TV 뉴스의 초기 화면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텔레트립 잘 생긴 남녀 영커가 아무런 표정이 없이 정치화면 상태로 근엄하게 시청자를 보고 있다가 뉴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무지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는다. 영커끼리 나누거나 영커와 기자가 나누는 대화도 선진국일수록 보고 듣기에 친숙하다. MBC-TV의 뉴스에서 종종 보지만, 우리는 대화형식에 익숙하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고, 기자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를 써 듣기 거부할 때도 있다. 고쳐 나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뉴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다. 뉴스는 객관성 공정성 균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정파성과 편파적 야한다. 나아가, 중요한 야당에 관한 기자의 전문성이 유감없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기자를 기르고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은 지금 MBC의 실험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고려대학교 신빙과 교수 ·디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임시국회 파행... 경제·민생 방치할 건가

5일 개원한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 의원들의 탈당 압박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이다. 정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경제 및 민생 현안을 챙겨주길 기대했던 현실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운영위원장 문제는 대선을 앞둔 여야간 힘겨루기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정상이라면 운영위원장은 원내 제 1당이 열린우리당 몫이다. 하지만 원내 제 1당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이후 운영위원장 선출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 1당이 되면 정국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가 개헌안까지 발의하면 한나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정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국민들의 생활은 정치권이 허송세월해도 좋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국회가 계류중인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경제정책이 방황타를 잃으면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전남의 각종 현안에도 적신호를 켜졌다. 'F-1(포틀러 원)특별법'과 '남해안개발특별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서남권발전특별법'도 최소한 상반기 내에 처리돼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과 지방의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정쟁을 앞세워야 하는 법안은 분리처리하는 것이 도리다. 당리당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인적자원 활용전략'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5일 날로 고령화하는 국내 인력구조에 맞춰 중장기인력 활용방안인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10년 이후 노동력이 부족해질 미래를 대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듯하다. 국내 인적자원의 방향을 고령사회에 맞춰 재편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인적자원 활용전략은 병역제도 개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시기를 2년 앞당기고 근로자의 퇴직 시기는 5년 늦추는 등 기본적인 인력수급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구조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병역제도 개혁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정책을 달성하기 위...

한 로드맵이나 재원 조달 방안도 담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0년에 현재의 '취업난'이 '구인난'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청년 연장과 국민연금 지급, 학제개편에 따른 교원 충원문제 등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등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광범위한 인력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고 소모되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없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 '대선용 핵심 전략'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후식



합천군이 수십억원의 경남도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공원의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합천군이 공원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공원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이는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의 당사자를 기리는 기념사업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판단된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12쿠데타와 5·18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의 정...

반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합천군수를 비롯한 일부의 추종자들은 마치 학살원흉의 명령을 수행하는 듯 분별력을 상실한 채 너무나 당당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진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것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착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학살원흉'이라는 것과 쿠데타세력의 두목이라는 악성(惡性)자원을 관광상품화 해서 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악성(惡性)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다니...

신을 기리고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공원기능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공원의 명칭을 변경해 가는 과정을 볼 때 쿠데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 쿠데타 대통령을 기린다는 자세답게 '새천년 생명의 숲'이란 공원의 이름을 쿠데타적으로 변경하고 말았다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마치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10·26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주(서울)의 봄'의 기운을 12·12와 5·18이라는 강압적 방법으로 짓밟아 버렸듯이,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을 강압적인 설문조사의 결과판으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런 탓에 합천과 경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합천군을 바라보는 눈이 굵지 않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중앙정당들도 반대나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시민사회단체와 경남의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인식하게 될 때 이들의 망상이 반성의 자세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합천군과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합천군의 비합리적인 행정에 대한 제재가 단행되어야만 이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단지 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로만 간주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합천군도 더 많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는 인식에서 볼 때 이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합천군과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은 5·18과 그 이후 겪었던 엄청난 시련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더욱더 반대와 철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18민주화운동동맹사회>

접촉 사고때 다른 운전자 배려해 갖길 이동후 사고처리를

며칠 전 최근길 동림동 쪽 주택가 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한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사소한 접촉사고와 큰 차량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잠잠못을 따진 탓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면 차가 막히지 않도록 도로 한 쪽으로 차량을 옮긴 뒤 따져야 했다. 두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뒤따르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차 안에서 이 유 없는 교통 체증에 따른 불만을 토로했을...

생각을 해봤는가. 이번뿐만 아니다.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옆으로 옮기고 사고를 빨리 처리하려는 운전자들 찾기 힘들다. 일단 내려서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까.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 차량 이동이 한적한 곳으로 옮겨 사고처리를 했으면 한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사회적인 동물 늑대



저녁 무렵에 늑대 울음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 무렵 늑대 울음 소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울음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동물원에서는 들을 수 있지만 울어도 말하기 힘들다. 우리 동물원에도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렁차면서 으악 소리를 끼치는 그 울음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늑대 울음소리(howling)는 무리의 교신 수단이다. 따라서 무리가 없는 동물원에선 전혀 그렇게 울어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1천여마리의 늑대가 학살됐다는 걸 보면 예전에 꽤 많이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전설 속에 거의 늑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과는 별로 마찰이 없었던 듯하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발견된 영주 늑대가 공식적으로 최후의 늑대였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양떼들에 피해를 주는 늑대와 한판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양도 살리고 늑대도 살리는 공존의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사이튼동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늑대양 로보'다. 로보는 그 어떤 합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결국 아내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고 있다. 그건 지금도 늑대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분재 만들려고 소나무 파기는 못된 사람들

주말에 산행하다 보면 소나무 숲 가운데 군데군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분재용으로 소나무를 파다가 뿌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 많아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주택가를 지날 때도 어떤 가정에는 마당에 수십 그루의 소나무분재를 식재하고 있음을 볼 때 분재의 아름다움보다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죽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산불, 나무심기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

에는 특히 자연의 보배인 소나무를 분재로 부터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가정에서 5그루 이상 소나무 분재가 있을 때 단속의 대상으로 하고, 산에서 채취시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강력제재를 했으면 한다. 국민들도 단속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생명과 같은 귀중한 소나무를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모양의 소나무를 감상하는데 만족했으면 한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대학시절 영문학도라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노암 촘스키(79·Avram Noam Chomsky). 그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창시한 언어학자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등 반테러전쟁을 비난하고 그 허구를 폭로한, 행동하는 최고의 지식인으로 더 유명하다. 제3세계의 민주주의를 교묘히 짓밟는 미국의 경제, 정치권력 등 미국의 세계제대 음모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어 '세계의 양심'으로 존경받고 있다. 스포츠맨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 뉴욕메츠의 1투수 카를로스 델가도가 '그라운드의 촘스키'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는 미...

스포츠와 '정치'



면에서 선수가 정치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의 표현을 철없는 돌출행위로 나무랄 수만은 없다. 신성한 스포츠제전을 정치적으로 치졸하게 활용하는 것은 중국이고, 또 우리에게 백두산의 의미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